

연중 제28주일

기도서 P. 454 A해

제1독서(이 사 25, 6-10a)
제2독서(필립 4, 12-14, 19-20)
복음(마 태 22, 1-14)

숲 정 이

발행처 천주교전주교구
편집인 사목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김 중 택 신부

로사리오기도는 전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극히 간단하여 누구든지 바칠 수 있으며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간단하지만 깊은 현의가 있어서 아무리 박식한 학자라도 그 뜻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찌기 교황 비오 9세께서는 순례자들에게 당신이 가장 아끼시던 묵주를 보여주시며 “이것이 바티칸의 가장 귀한 보배이다”고 말씀하셨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묵주를 소중히 여기는 곳은 어디서나 가톨릭 신앙이 융성한 반면에, 묵주를 소홀히 여기는 곳은 가톨릭 신앙이 빈껍데기 같고 온갖 오만과 그릇된 사상이 머리를 쳐들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초세기에는 대부분 글을 몰라서 시편으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없어서 주의 기도나 성모송을 한변씩 드리고 있었는데 그 수를 세기 위해서 돌맹이나 씨앗들을 꿰어서 사용하였다. 12세기 말엽에 선과 악의 신이 따로 있다는 알비젠 이단이 생겼을 때 성모께서 성도민들에게 발원하시어 “묵주의 기도를 하면 덕행이 번성해지고 죄악이 근절되며 이단이 소멸되고 풍성한 성종을 얻을 것이다”고 약속하셨다. 도민고 성인은 시편 150편 대신 성모송 150번으로 대치해서 묵주를 만들어 전전하셨다.

16세기에는 터키 나라가 오늘날의 초련처럼 크리스찬 문명을 크게 위협하고 할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의 인접 도시와 교회를 약탈했는데 나중에는 이태리 로마를 점령하려고 덤벼들었다. 1917년 5월 30일 적군함 330척, 아군함 60척이었다. 아군 병사들은 모두 성사를 받았다. 교황 비오 5세는 모든 교우들에게 묵주의 기도를 계속하게 명하시며 당신도 3일간 단식하시고 미네르바 성당에서 로사리오 행렬을 하셨다. 1517년 10월 7일 마침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10월 7일을 거룩한 로사리오 축일로 정하셨다.

1883년 9월 1일 교황 레오 13세는 10월을 로사리오 성월로 정하셨다. 이 묵주의 기도야말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성덕으로 오르게 한 기도이며 성모께서 루르드나 파티마에서 발현하실 때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은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부탁하신 기도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묵주의 기도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성덕으로 오르게 한 기도이며 성모께서 루르드나 파티마에서 발현하실 때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은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부탁하신 기도입니다. 열심히 묵주의 기도를 합시다.

(복자성당 주임신부)



여의도에서 만남시다.

함께 모인다는 것은 꽤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명절이 되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발디딜 틈도 없는 캄속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고향을 찾는다. 비록 원수지간에 있다 하더라도 자꾸만 자리를 함께 하게 되면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하물며 피를 함께 했다면, 자리를 같이 하는 일은 당연하고도 또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앙을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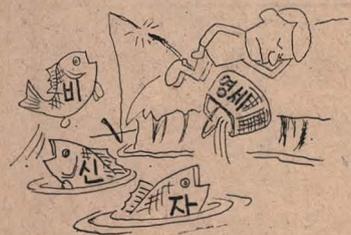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가진바를 서로 나누었다>라고 전한다. 신앙공동체의 참모습을 말함이다. 일주일에 한차례씩 모여서 “서로 한 형제”라고 노래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것도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일찌기 우리의 선조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 박해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만상이 잠든 캄캄한 밤중이나 폭두새벽에 모였다. 그들의 생업의 도구이기도 한 그릇을 굵는 가마에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러했던 시발이 어언 200년에 이르고, 금년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어깨를 나란히한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지금은 아무도 우리의 발길을 잡지 못한다. 있다면 개인적인 이유 뿐이다. 예전의 그때처럼 밤길을 재촉해서 여의도로 모이자.

은 한국 천주교회가 <이웃 전교>를 목표로 삼는 올해에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하느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가진바를 나눌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볼 것이다. 또 주께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을 늘려 주셔서 신도들의 모임은 커져 갈 것이다.

누구나 다 바쁘겠지만, 함께 모이자. 여의도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노래가 이 민족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노래가 되게 하자.

숲 정 이 산책



잠을 깨고 많이 낚으시오!

□ 전교의 말에

왜 둘이나 셋인가?

수류 주임신부 이 순 성

약 2년전의 일이다. 자칭 야매 하느님의 증인? (여호아의 증인)이라는 일단의 무리들이 그들 말로 급선의 선교지역인 수류 골짜기에 들어왔다. 기억에는 20여명 짝수였다. 그들이 구 교우촌인 수류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으나 적어도 그들의 선교방법이 대단히 성서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었기에 이 단을 빌어 잠시 소개와 아울러 자아반성을 권해보고 싶다.

작수로 20여명인 그들 전교단은 우선 제1대상 지역을 향해서 무조건 진입해 들어왔다. 대상지역 어귀에서 지도급 단원의 지시에 따라 들쭉 들쭉 짝을 지어 구제대상 가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적어도 한시간 이상을 방문 가옥에서 지내뉘 되돌아가 지도급 단원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한 후 무리를 지어 돌아갔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제2, 제3의 수류 골짜기 선교대상 지역을 순회하였다.

사도들의 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선교 여행이나 활동을 나설 때의 사도 혹은 사도의 제자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동반자를 대동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 바르나바와 사울, 바르나바와 마르췌, 바오로와 실라, 바오로와 디모테오, 바오로와 실라와 디모테오, 실라와 디모테오, 바오로와 브리스킬라 그리고 아킬라, 디모테오와 에라스도 등등..... 예수께서 "단 둘이나 셋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마테오 18:19-20)"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니는 기본으로 들쭉 혹은 셋씩 짝지어 다닌 것인가? 아니면 공생활중 예수께서 12제자와 72제자를 들쭉 들쭉 짝지어 보내신 전례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무튼 여호아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후에 들쭉 사도들의 제자들처럼 들쭉 들쭉 짝지어 선교활동을 했던 것이다.

여기에 비록 들쭉 짝지어 제자들을 파견하셨던 예수께서 들쭉 파견하셔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어도 또 제자들과 그 후예들이 그렇게 활동해야 하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알아듣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약점을 자세히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단 하나의 전교 대상자를 위해서도 방문자 두 사람의 폭넓은 체험과 이해를 전달시키고 방문자 한 사람의 표양보다는 둘 혹은 셋의 표양을 선보이며 방문자 자신들도 혼자보다는 둘일때 더 큰 용기와 아울러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배려하신 것으로 알아 듣는 것이다.

결국 여호아의 증인들이 행하는 선교방법은 대단히 성서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비교된 우리의 선교방법은 어떤 것이었나 하고 반성을 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81년도 추곡 수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지금 농업과 농가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국내 농업을 희생시켜온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농가경제는 지난해의 극심한 흉작과 날로 폭등하는 물가고와 농업자재값의 대폭 인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형편속에서 금년 농사는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영농시작 때부터 불타는 가뭄을 맞아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 이겨내었고 이번 태풍 피해까지 당하여 금년의 농사는 그 어느해 보다 농민의 노력과 어려움이 가중된 한해였다.

이러한 농민의 노고를 보상하고 한계에 이른 농가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보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농업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널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간 우리나라 농업은 저임금과 외국 농산물 도입을 통한 저농산물 가격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 자본에 의한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농민의 영농의욕은 상실되어 농업생산 기반은 파괴되고 국민경제의 불균형은 심화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과 식량을 무기화 하고 있는 국제 정치 상황속에서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급격히 하락하여 42%선 이하까지 떨어져 이제 국가안보의 당면한 과제로 되고 있음은 정책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하곡 수매가와 그동안의 추곡 수매가격은 생산비에도 크게 미달되는 낮은 값으로 결정되어 왔다. 본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의 쌀 수매가는 신품종의 경우 평균 생산비보다 80kg 쌀 한가마당 78년에는 15,178원, 79년에는 18,300원, 80년에는 25,307원이나 낮은 것으로 농가의 적자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금년의 추곡 수매가는 빗더미속에 허덕이는 농가경제를 되살리고 떨어진 생산의욕을 되살려 농업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확대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농가경제 회복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여 오늘날 불황속의 국민경제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위기이다. 따라서 본회는 위기에 처한 농업을 되살리고 농가경제 회복을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 1. 81년도 정부 추곡 수매가격은 신품종 쌀 80kg 한가마당 73,000원 이상으로 결정하고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할 것 (81년도 생산비 추정치는 가마당 72,627원임)
- 2.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격을 영농 시작전에 예시할 것
- 3. 수해 피해농가에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
- 4.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자재값을 인하 할 것
- 5. 농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곡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1981. 9.

한국 가톨릭농민회

결 (축) 혼

신랑 : 한 광 희 (다윗)
신부 : 서 갑 순

일시 : 1981년 10월 18일 (12시)
장소 : 전주 노송동 천주교회
주례 : 김 정 원 신부님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 (방지거)
전주 남문열 (대지여과 입구)
전화 ④4989 (사구팔구) ⑥1988

삼 성 문 구 사

교우 특별 우대함

각종 문구 종합 도매
군산시 평화동 47-5
전화 ⑦ 7 5 5 7
주 박 한 용 (가별)

ECCLESIA

81년도 사목평가 및 82년도 계획수립 합동회의 열려...

지난 10월 5일 가톨릭 센터에서 81년도 교구사목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82년도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합동회의가 열렸다.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의 각 본당 사도회 대표와 제단체장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의 합동회의는 지난 한해동안의 교구의 제반 사목과 운영에 대한 양국장(사목국·관리국)의 업무보고와 사목실적 평가후, 제시된 82년도 사목계획 시안을 가지고 본과별 토의에 들어갔다. 참여자의 관심에 따라 5개 본과(교육·신교·재경·봉사, 200주년 사업)로 나누어 제시된 시안을 진지하게 토론했 후, 본과별 종합발표가 있었다.

교구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치를 보인 이날 회의내용은 82년도 교구 사목 계획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회합에 몇 본당의 신부님과 많은 본당의 사도회 대표가 불참한 것은 참으로 아쉬웠다.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신앙대회 참가 안내

일시: 1981년 10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 여의도 광장

※ 협조사항

1. 각 본당은 모두 본 대회에 참석토록 협조 바람(불참자는 토요 특전미사 참례 또는 공소에절이나 대송을 바치도록 할 것)

2. 공소에서도 대표자들만은 가능한 모두 참가토록 협력 바람

※ 유의사항

1. 신부님들은 정장을 해주시고 교우들도 모두 복장 단정토록 유의하실 것.
2. 교우들은 모두 배부된 「리본」을 착용하시고, 각 본당에서는 피켓(50명당 1개) 지참, 대절버스에는 스티카와 현수막을 부착토록 할 것.
3. 행사장에는 모두 당일 오전 9시전까지 도착 정렬토록 유의할 것. (지방교구는 행사장 중앙에 배치)
4. 기차편을 이용하실 교우들은 본당에 사전 신청, 인출에 차질없도록 유의하실 것
5. 본당 수녀님들은 교우들과 행동을 같이 해주시고 그의 수녀님들은 별도 수도자석에 합석해 주실 것..
6. 전교구일(18일) 헌금은 당일 헌금(전주교구분)으로 내치할 것임. (불참 본당은 교구에 납부 바람)

교구 예산 심의 착수

맘의 보람을 점진하는 수확의 계절, 그대 교구에서도 한해 사목운영의 평가와 새해 설계에 한창 바빠졌다. 지난 6일엔 참사회에서 예산 기초심의가 있었고, 오는 13일부터는 지역별 심의를 거쳐 26일에 최종 예산확정 회의를 갖는다. 보다 나은 교구의 사목과 운영대체 수립을 위해 배전의 협력과 관심을 빌어마지 않는다.

□ 보성에 수해의연금 계속 담지

맘들려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보성을 돕고자는 열의가 한창이다. 군·육지구의 돈을 *월명·오룡·경장·대야본당에서 50만원, 임실 10만원, 김말가리다 2만원의 성금을 그곳에 전달했다.

(축) 영명

정 태 현(갈리스도) 신부님: 10월 14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요심이 (427) 김병오



직 원 모 집

1. 모집부문: 사무직 여자 ○명
 2. 자격: ①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② 1981년 11월 1일 현재 만 18세이상 22세미만 미혼여성
 3. 제출서류: ①자필이력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서 1통 ④ 자격증 사본
⑤ 본당신부님 추천서 1통
 4. 접수기간: 1981. 10. 12~1981. 10. 24 오후 1시까지
 5. 접수처: 본 조합 사무실 전화 ②0498(구성모병원3층)
 6. 시험과목: 일반상식, 면접
 7. 시험일시: 1981. 10. 27 오전 10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981. 10.
- 전북 의료 협동조합 이사장 김 영 일

* 생활 정보 *

- ★ 순 명주솜 식별 방법: 명주(SILK)는 섬유중에서 가장 염색이 잘 됨으로 솜을 조금 뜯어 잉크에 적셔 보아 진하게, 고르게 염색되면 이물질이 안섞인 순 명주라고 믿어 좋습니다
 - ★ 고급 명주솜이란?: 순 누에고치를 가공 타던 한솜으로 부피가 크고 탄력과 장력이 우수합니다. 누에고치 솜은 솜을 조금 뜯어 불베 섬유가 10~20cm 정도 길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 ★ 보통 명주솜이란?: 제사공장에서 명주실을 뽑고 난 제사설로 가공 타던 한 솜입니다
- 폐사에서 생산되는 하이실크(本綱) 솜은 순 누에고치 고급 명주솜입니다(공장도 가격 3.75kg ₩30,000원)

전주 덕진 종합경기장 앞 해성제면공업사 전화 ②9045 대표 소 병 을(루가)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200주년 기념 전주교구 준비위원회: 10월 14일(수) 오후 7시 교구청 회의실
2. 꼬미시움 월례회: 신양대회 관계로 둘째주일 10월 11일로 앞당깁니다
3. 제 4 지역 회합: 10월 15일(목) 오후 2시, 송정이 성당
4. 제 4 지역 울드레아: 10월 12일(월) 오후 7시 30분. 센타에서
5. 제 2 지구 회의: 10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오룡동
6. 원평성당 신축을 위한 특별헌금(제 2 지역): 10월 25일(주일)

(중앙) 전화 ③3651번
 수임 신부 문정환
 보좌 신부 유종민
 사도 회장 김인병

1. 꾸리아 옥외행사: 덕진 뒷산 11시 레지오 단원과 협조단원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자모회: 10월 24일 오전 10시 강당
 3. 조선교구 150주년 행사 참가: 10월 18일 오전 10시 여의도 광장. 기차표 사무실에서 예매중입니다. 금일 11일 마감
 4. 예비신자 교리: 부활반 10월 4일부터 시작 10월은 전교의 달이니 예비신자에게 많은 관심을...
 5. 중·고생 추계 체육대회: 10월 25일(일)
 6. 야학 2기 입학식: 10월 5일 오후 8시
 6. 교무금 완납: 본당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교우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567,241원 특별헌금: 익명 5,0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베소라 성서강의: 13일(화) 저녁 8시~10시까지 주제: 고난의 의미-예수 수난의 서문
 2. 수녀님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
 3. 금주의 성경읽기: 구역의 잠에서 전체
 4. 꾸리아 회합: 오늘 공식미사 후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5.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 매주(금) 오후 8시부터
 7.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 18일 오전 10시 출발-17일 저녁 11시 전주역에 집결, 승차권 예매중
- 지난주 봉헌금: 303,99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반석회 월례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매월 둘째주 공식미사후는 반석회 회합일입니다
 2. 오늘은 애령주일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합니다
 3. 주일학교 교리: 일요일 오후 2시, 미사 3시
 4. 예비자교리: 일요일 공식미사 후
 5. 성서연구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저녁 8시 많은 분을 참여를 바랍니다
 6. 수재민을 위한 성금: 오늘 특별헌금 있습니다
 7. 조선교구 150주년 신앙대회 참가하실 분은 오늘까지 신청 바랍니다
 8. 제대 초 기증: 이순애(테레사)자매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63,220원 군인주일헌금: 54,310원

(복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석호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이충원·정경진)
2.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 일시-10월 18일 장소-서울역 여의도광장. 전주역 출발-17일(토) 저녁 11시, 기차표 본당사무실에서 판매 왕복 4,500원 아침도시락 차림, 점심은 서울에서 제공(18일 공식미사, 어린이미사 없음)
3. 은퇴신부님들 위화 헌금: 나누어 드린 봉투에(영적, 물적예물) 정성을 다해 주소, 성명을 뚜렷히 적어 사무실에 내주세요
4. 견진신청서 속히 내주세요 견진 신청하신분 모임: 10월 12일(월) 저녁 7시30분
5. 봉헌금 미수 완납 바람 제정교감로 10월분 생활비를 지출 못하고 있습니다

6. 주일학교 자모회: 월요일 어머니미사 후
 7. 다음주 전례해설: 김정순, 독서-①염규철 ②박석순
 지난주 봉헌금: 300,09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반장님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성심부녀회 모임: 11일 오후 2시 회의실
 3. 꾸리아 모임: 11일 오후 2시
 4. 가정방문: 14일·16일(4반)
 5. 중·고생 성가연습: 월·목·토(오후 7시) 학생들 참석 요망
 6. 150주년 신앙대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진성서: 11월 1일(신청서는 사무실에)
 ※ 견진교리 10월 26일~31일까지(저녁 8시)
 8. 다음주 전례: 독서-강기호·김한기
- 지난주 봉헌금: 178,000원 교무금: 74,000원

(송정) 전화 ⑦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10월 11일 공식미사 후
 2.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 참가: 열차표 가지고 17일 밤 11시까지 전주역에 모여주세요
 3. 성경연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0분
 4. 복사단 모임: 10월 11일 오후 5시 가입된 복사단원, 가입하고자 희망하는 학생은 참석하세요, 부모님들께서도 협조 바랍니다
 5. 예비교리시간 안내: 주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후 2시, 밤 7시30분
 6.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귀례 독서-김창영·김경주, 기도-박대규
- 지난주 봉헌금: 276,07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우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 공식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3. 미사시간 변경: 아침-5시30분, 저녁-7시
 4. 꼬미시움: 오후 2시
 5. 성화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성서 40주간 공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사제관 2층
 7. 조선교구 150주년 기념행사 기차표 사무실로 빨리 접수 바랍니다 기차표: 4,500원(왕복)
 8. 예비자 봉헌: 전교의 달에 1인이상씩 봉헌합니다
 9. 군중후원회에 많이 가입합니다 가입서 사무실에 제출 바람
- 지난주 봉헌금: 470,89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견진대상자는 교리를 꼭 들으시다 ※ 견진자는 매부·모를 미리 선정 바람
 3.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신앙대회 -참석자는 17일 저녁 11시까지 전주역 집결 -가실분은 오늘 저녁까지 신청하세요 -못가시는 분은 주일미사와 함께 마음으로 동참 -신양대회가 하느님의 뜻대로 또 사고없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5,660원 교무금: 132,000원